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73호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포항 강진에 15곳 사찰 성보 피해

기림사 대적광전 공포 이탈 등… 문화재청 국보 · 보물 진단 실시

지난 11월 15일 포항 북구 9km 지점에 발생한 진도 5.4 규모의 지진으로 포항 · 경주 · 영천 등 지역 사찰 1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문화재청 등은 지진 직후 피해 사찰과 문화재 피해 상황을 집계했으며, 집계 결과 사찰 15곳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

포항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경주 기림사다. 경주 기림사의 경우 보물 제833호 대적광전 공포부 주두 일부가 탈락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성보 박물관 전시장 상부가 지진으로 이격됐다.

또한,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국보 제40호)의 경우 석탑 옥개석 부재가 이동되는 피해를 입었다.

포항 지역에서는 보경사 · 용연사 · 임허사 · 죽림사 · 대성사 · 운흥사 · 관음사 등이 지진 피해를 받았다. 포항 보경사는 보물 제1868호 적광전의 천정 및 포벽 흙 표면이 탈락됐으며, 내부 불단 하부 박석이 침하됐다. 또한 보물 제430호 보경사 승탑은 상륜부가 이동됐다.

용연사는 경내 삼층석탑 모서리가 파손되고 기단부 일부가 이탈됐으며, 임허사는 담장 일부와 기와 부분이 파손됐다.

죽림사는 석등이 파손됐으며, 대성사는 축대에 금이 가고 탑 2기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운흥사는 요사채 기와와 물탱크가 파손됐으며, 관음사도 요사채 지붕 기와가 파손됐다. 총지종 수인사와 선림사는 사찰 기와가 파손됐으며, 포항 원효종 고왕사는 대웅전에 피해를 입었다.

영천 · 양산 · 창녕의 일부 사찰들도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 영천포교당은 법당 기와와 담장 기와 일부가 탈락됐으며, 양산 법천사는 담벽 일부가 금이 가는 피해를, 창녕 극락암은 요사채 벽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현장 진단과 복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은 주변서 조사 중인 전통사찰 전수조사팀을 기림사 현장에 투입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등 관련 유관기관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획 중이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첨성대, 불국사 등 23건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영남권 소재 국보 · 보물 691건과 국가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145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 지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한 이재민의 손을 꼭 붙잡으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위로 방문은 설정 스님의 첫 대외 행보였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흥해실내체육관에 구호 부스를 설치하고 이재민 구호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피해 지역에 구호 시작
설정 스님 첫 행보로 위로 방문
본사주지협, 성금 1천만원 쾌척

위덕대, 학생 전원 귀가 조치
현재 건물들 안전진단 진행 중

불교계 구호 자비행 '잰걸음'

피해 사찰 성보 피해 복구와 더불어 피해 지역에 대한 불교계의 자비행도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포항 강진 발생 다음날인 11월 16일 이재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흥해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는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대외 행보였다.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은 채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설정 스님은 "정부와 국민이 여러분 뒤에 있다. 위기상황이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다 같이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20분가량 머물면서 이재민들의 힘을 북돋았다.

이후 설정 스님은 지진으로 인한 사찰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보경사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함께 보경사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김 청장에게 문화재 관련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16일 오전 포항 지역 피해지역에 조계종긴급구호단을 급파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 매뉴얼에 따라 현지 사찰 및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이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긴급보고를 받고 조계종긴급구호단 파견을 결정했다.

현장에 급파된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보호작업장과 연계해 흥해실내체육관에 천막부스를 설치하고 생수, 음료, 과일, 떡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500개를 지급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이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곁에서 살피며 드라이푸드 등으로 구성된 구호 물품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각종립 위덕대 발 빠른 조치

포항에 위치하고 있는 진각종립 위덕대는 지진 발생 직후에 발 빠르게 안전 조치를 취했다.

위덕대는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 학생 전원에 대한 안전 귀가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가용한 학교 차량부터 관광 버스까지 대절해 지역별로 학생들을 귀가 시켰으며, 현재는 학교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이종렬 위덕대 홍보실장은 "위덕대는 지진 피해 지역에 소재한 만큼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으며, 현재 건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에 자비 손길을

현재 강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대피소를 찾는 이재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상황에 대해 조계종 긴급구호단은 "체육관 내부에 자리를 잡은 가족은 그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육관 한편 의자나 외부 차량에 몸을 뉘인 채 불안한 상황이 종료되길 기다리는 이재민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새 계속된 2.0 이상의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전하는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불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복지재단은 피해지역 현장 복구 및 주민 지원을 위해 구호물품 및 구호기금 지원을 위한 후원모금을 진행하고 있다.(하나은행 271-910006-64104 / 예금주: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성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포교대상 정우 스님 · 故 윤용숙 보살

조계종 포교원 16일 발표…12월 6일 시상식



정우 스님



故 윤용숙 보살

조계종 포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스님과 불자를 대상으로 수여되는 포교대상에 前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보덕학회를 창립한 故실상화 윤용숙 보살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6일 제29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공개했다.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한 정우 스님은 11968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조계종 9~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통도사 주지, 불교방송 이사를 지냈다.

스님은 특히 1985년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주지 부임 이래 도심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구룡사 · 여래사 · 원각사 · 법계사 · 반야사 · 연화사 · 장안사 · 보명사 등 도심 포교당을 건립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 관인 · 구룡 · 장안 · 선재 등 어린이집을 운용해 어린이 포교에도 힘을 쏟았으며, 인도 고려사 · 설산사 · 호주 정법사 · 뉴욕 원각사 등 세계 각국에도 사찰을 건립해 한국불교를 알리고 국격을 높였다.

통도사 주지로 있을 당시에는 2009년 대만 불광산사와 금란가사 봉헌 및 수재민 돕기 지원을 했으며, 다비장 대중화 등을 이끌었다. 2013년 군종교구 3대 교구장으로는 인재불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장병 핫팩 보내기, 교구본사와 군사찰 자매결연, 수계불자 12만명 돌파 등 큰 공로를 세웠다.

故 윤용숙 보살은 1974년 여성불자 모임 불이회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을 맡은 후 40년간 불이상 시상과 봉사, 전법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불이회 강좌를 40년간 꾸준히 열어 500회가 넘게 개최해왔다. 1993년에는 남편인 보덕 류홍우 거사와 재단법인 보덕학회를 설립해 20년 동안 전국 각지 불사후원, 불교학술 지원 등에 앞장서 왔다. 또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 한국불교연구원의 〈원효사상 전집〉 발간 등 불교계 굵직한 학술사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로상은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김인수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故브라이언 베리 前명예 국제포교사와 사찰인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가 수상했다. 원력상에는 前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선운사 신도로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스님과 불자들에게 법률자문을 해준 김윤봉 씨, 원주 구룡사 신도로 포교와 봉사활동을 해온 김선희 씨, 법주사 신도로 지역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헌신해온 김임중 포교사, 서울교통공사 법우회장 김영만 포교사, 김기호 포교사, 전상삼 포교사, 불교연극과 뮤지컬 등을 창작해온 정광진 씨와 단체로 작은보시 큰자비연등(봉은사)이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의장단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 열린다

11월 27일 57차 회의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조계종 원로회의 제57차 회의가 1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열린다. 현재 원로의장 종하 스님과 부의장 암도 · 세민 스님 임기는 12월 10일까지다. 회의서 선출되는 신임 의장단은 2022년 12월 10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서는 중앙종회서 추천된 원행(월정사) · 현호(송광사) · 일면(봉선사) 스님에 대한 원로의원 선출의 건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다룬다. 대종사 법계 대상자는 원로의원인 성타 · 월주 · 지하 · 보선 · 법타 · 철웅 스님을 비롯해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법계위원 경일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 계단위원 무관 스님,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등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